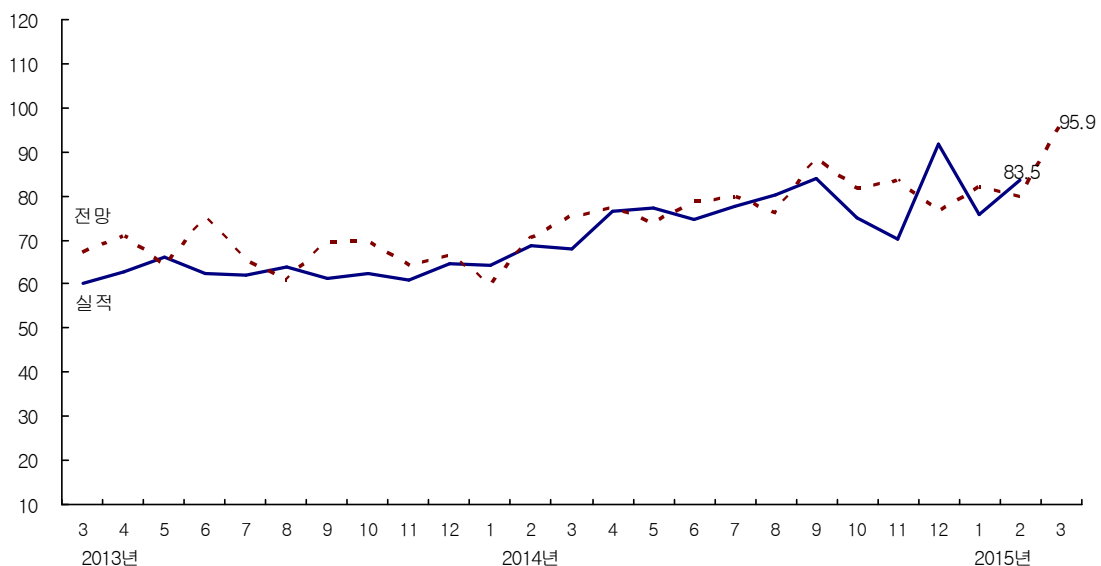


# 2015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2월 CBSI 7.7p 상승한 83.5 기록  
12년만에 처음으로 2월 CBSI가 80선 상회

- 2015년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7.7p 상승한 83.5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1월에 폭한기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 작년 12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통계적 반락 등으로 전월비 15.9p 하락해 75.8을 기록했다.
- 하지만 2월에는 전월비 7.7p 상승하면서 다시 80선을 회복함. CBSI가 2월에 80선을 상회한 것은 2003년 2월(84.3) 이후 12년만에 처음임<sup>1)</sup>.
- 또한, CBSI는 건설경기 침체로 2010년 이후 지속해 80선을 하회했는데, 80선을 상회한 것은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작년 8월과 9월, 연말 공공 발주물량이 증가한 작년 12월에 이어 4번째임.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올 2월 CBSI 상승은 통상 1월에 비해 공사발주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전월 CBSI의 큰 폭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1) 통상 2월에는 폭한기 및 설연휴로 인한 공사 발주물량 감소로 CBSI가 저조한 경우가 많음.

가운데, 무엇보다 최근 주택경기의 견조한 회복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주택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가 2월 CBSI 상승을 주도한 것을 볼 때도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회복이 건설기업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100.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가운데,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가 상승했음.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0.0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으로 100선을 유지하였음. 대형업체 지수는 2014년 4월에 90선을 회복한 이후 기준선을 중심으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안정적인 체감경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18.7p 상승한 90.6을 기록해 작년 12월 이후 2개월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했고, 2월 CBSI 상승을 주도했음.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4.1p 상승한 56.0을 기록하였음. 1월 대비 공공 공사 발주 물량이 소폭 증가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6.5	77.2	74.5	77.7	80.2	83.9	74.9	70.4	91.7	75.8	83.5	79.7	95.9
규모별	대형	92.3	92.9	92.3	100.0	92.3	108.3	92.3	92.3	100.0	100.0	92.3	107.7
	중견	75.9	74.1	73.3	75.8	83.3	80.0	78.8	70.0	97.0	71.9	90.6	100.0
	중소	58.8	62.5	55.1	53.8	62.5	59.6	50.0	45.1	76.0	51.9	56.0	77.6
지역별	서울	87.5	85.1	83.7	90.2	89.2	95.4	85.4	85.8	94.4	86.2	98.0	103.6
	지방	66.0	65.7	60.8	58.8	67.4	67.0	59.6	47.5	87.9	60.7	62.2	84.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5년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2.4p 높은 95.9를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건설업체들이 3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2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 특히, 전망치 95.9는 2009년 10월 전망치 110.8 이후 5년 5개월만에 최고치로서 건설업체들의 3월 경기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 통상 3월에는 호한기가 끝나고 발주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 3월 CBSI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승폭은 실제 3월 발주물량 수준, 주택 분양률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 지역별로 2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보다 11.8p 상승한 98.0을, 한편 지방은 1.5p 상승에 그친 62.2를 기록함. 지방보다는 서울의 지수 개선이 두드러짐.
  -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11.8p 상승한 98.0로 지난 2009년 10월 102.2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5p 상승한 62.2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b>2015년 2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b> <b>13.9p 상승한 84.8 기록</b>
---

- 2015년 2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3.9p 상승한 84.8을 기록함.
  - － 공사 물량 지수는 지난 2014년 12월에 94.4를 기록해 4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에 전월 대비 23.5p 하락한 70.9를 기록했음.
  - － 2월에는 전월보다 13.9p 상승한 84.8을 기록함. 통상 1월보다 2월의 지수가 양호하지만, 평균적으로 1~2월 상승폭이 5p 내외인 것을 감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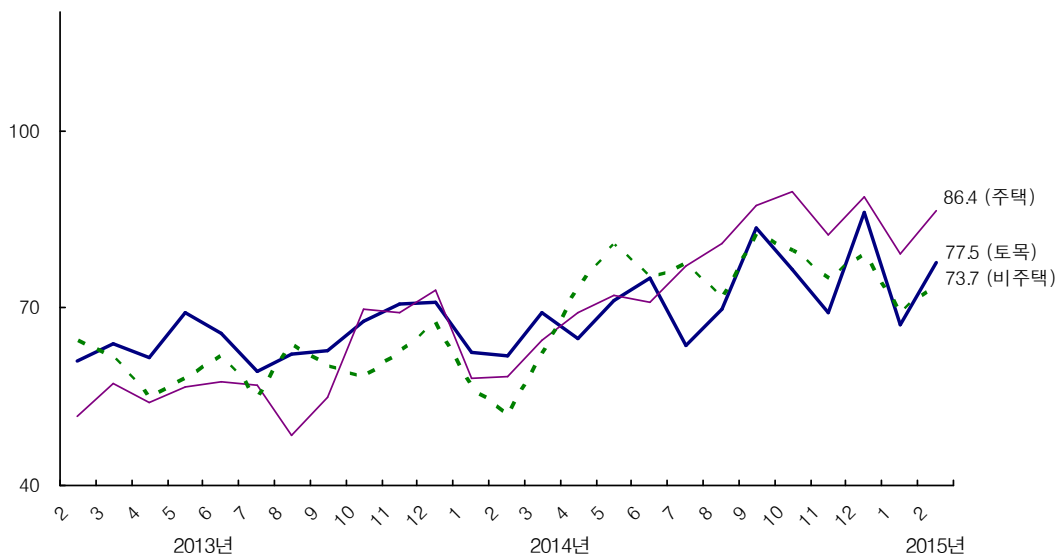
고, 올해 2월에 설 연휴가 작년 보다 길었던 것을 감안할 경우 지수가 전월 대비 10p 이상 상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올해 2월 물량지수 84.8은 기준선 100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기존 전체 공사 물량지수의 2월 최대치 83.7(2003년 2월)을 넘어서는 수치로, 올해 2월에 업체들이 느끼는 공사 물량에 대한 체감 수준이 예년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모든 공종에서 전월보다 지수가 증가한 가운데, 주택과 토목 물량지수의 상승이 두드러짐.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2014년 12월에 전월 대비 17.0p 증가한 86.1로 4년 5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지난 1월 전월보다 19.0p나 하락한 67.1로 부진하였음. 2월에는 전월 보다 10.4p 상승한 77.5로 공종별로는 가장 상승폭이 컸음.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7.3p 상승한 86.4로 공종별로는 유일하게 80선을 상회함.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4.4p 상승한 73.7을 기록하였음.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모든 업체의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함.
  -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5.4p 상승한 100을 기록함. 주택물량 지수가 123.1를 기록하고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92.3을 기록, 주택물량 상승이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됨.
  -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2.5p 상승한 87.5를 기록함. 토목과 주택이 각각 81.3, 80.6, 비주택이 78.1로 상대적으로 토목물량 상황이 그나마 침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4.0p 상승한 64.0을 기록함. 토목과 주택은 56.0, 50.0으로 50선을 기록하였으나, 비주택은 46.9로 40선에 불과해 비주택의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총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4.8	100.0	87.5	64.0	96.2	68.2
	전망	95.9	107.7	100.0	77.6	103.6	84.7
토목	실적	77.5	92.3	81.3	56.0	83.3	69.0
	전망	87.6	92.3	96.9	71.4	91.6	81.7
주택	실적	86.4	123.1	80.6	50.0	105.0	59.2
	전망	97.9	115.4	100.0	75.0	108.0	83.3
비주택	실적	73.7	92.3	78.1	46.9	82.5	60.7
	전망	78.9	84.6	87.5	62.5	83.4	72.3

주 : 실적은 2015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3월 예측지수임.

- 2015년 3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2월보다 11.1p 상승한 95.9로 전망함.
  - － 흑한기를 지나면서 통상 2월보다 3월에 물량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주택 물량지수가 97.9로 공종별로 가장 수치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 － 한편, 토목과 비주택은 각각 87.6, 78.9로 전망하였는데, 비주택 물량 상황이 가장 열악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가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지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0.3, 96.9를 기록해 두 지수 모두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남. 두 지수 모두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인력 및 자재 수급은 여전히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2, 95.9을 기록했음. 인건비 지수는 전월 대비 4.9p 하락하여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반면, 저물가,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지수는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90선을 상회하고 있음.
-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98.0, 83.0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공사대금수급 지수는 2009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8.0	92.3	109.4	91.8	99.0	96.5
		전망	97.1	100.0	106.3	83.3	98.8	94.8
	자금조달	실적	83.0	84.6	81.3	83.0	82.6	83.5
		전망	86.6	92.3	87.5	78.7	85.1	88.8
인력	수급	실적	100.3	107.7	100.0	91.8	103.8	95.0
		전망	104.4	115.4	96.9	100.0	106.6	101.1
	인건비	실적	85.2	100.0	87.5	65.3	92.5	74.5
		전망	86.0	100.0	78.1	78.7	88.9	81.9
자재	수급	실적	96.9	100.0	100.0	89.8	100.0	92.4
		전망	95.8	100.0	96.9	89.6	98.2	92.2
	비용	실적	95.9	123.1	90.6	70.2	109.1	76.5
		전망	87.8	100.0	93.8	66.7	93.3	79.7

주 : 실적은 2015년 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3월 예측지수임.